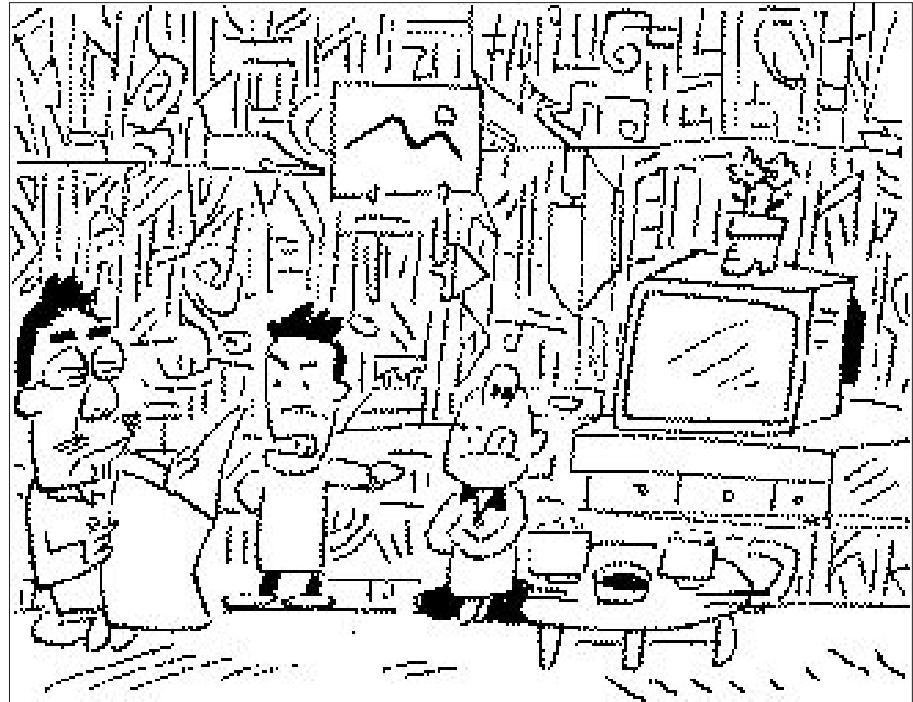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57>


(찾) (아) (보) (세) (요) 펭이, 펜촉, 부엌칼, 다리미, 바늘, 대접, 음표, 뜯단배, 열대어

특별대우

어느 마을에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밥상에서 반찬이라곤 간장 한가지뿐이었습니다.

구두쇠는 항상 “두번 찍지마, 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날 저녁을 먹는데 막내 아들이 불평을 했어요.

“왜 그려나, 막내야?”

“아버지, 형이 간장을 두번이나 찍어 먹었어요.” 그러자 구두쇠 아버지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놔둬라! 오늘이 네 형 생일이잖아.”

**지난주 정답**

음표, 고추, 열대어, 길매기, 서틀콕, 상어, 우산,

우유액, 펜촉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 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임성란〈보성군 보성읍〉 김보라〈광주시 북구 우산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5일 ‘밤의 황제’ 알 카포네 사망

케빈 코스터너와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언터처블(The Untouchables)’이라는 영화가 기억난다. 1920년대 금주법이 시행되던 미국을 배경으로 알 카포네와 특수수사대의 한판 승부를 그린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수작으로 꼽힌다.

알 카포네는 대공황 시대 미국 암흑의 전설적인 캠스터다. 오늘날로 치면 1천여명의 조직 폭력배들을 거느린 보스였다. 원っぱ에 흉터가 있어 ‘스카페이스(Scarface)’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1899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 시절부터 맹간에서 잔뼈가 굵었고 21세 때 시카고로 옮겨 26세 어린 나이에 마피아 조직을 물려 받았다. 이후 천부적 범죄 감각으로 밀주 제조·밀매·도박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 1920년대 내려진 금주령(禁酒令)의 최대 수혜자였던 셈이다.

벌어들인 걸은 돈은 부패 정치인과 경찰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수많은 폭력·살인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의 잔인함은 1929년 2월 14일 일어난 ‘성 밸런타인데이 대학살’ 사건에서 극에 달한다. 성 밸런타인 데이에 밀주제조 라이벌인 조지 버그스 모란의 중간 두목 7명에게 기관총을 난사, 살해한 사건은 미 시사주간지의 20세기 10대 범죄로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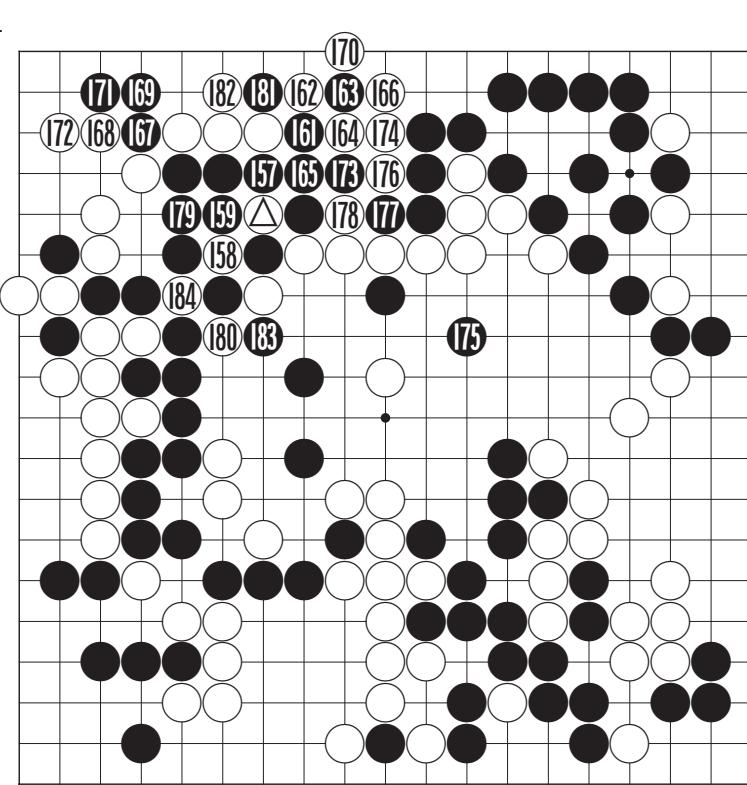
그는 대공황 시기에 젊은 나이에 1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등 미국을 흔드는 거불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대중에게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두려움에 없었던 그지만 1932년 탈세 혐의로 7년간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캠스터 인생은 막을 내렸다. 39년 가석방됐으나 매복 후유증으로 1947년 1월 25일 마이애미 집에서 초라하게 숨졌다. ‘밤의 황제’는 멋진 복수극도 아닌 병으로 그렇게 사라져갔다.

/김치울기자 dok2000@kwangju.co.kr



12세의 아들 ‘소니’를 위해 시카고의 유명한 야구선수 ‘가비·하넷’의 사인을 받고 있는 카포네(앞줄 맨오른쪽). 옆에 아들 ‘소니’가 앉아 있으며 주위에서 보디가드들이 지켜보고 있다.

제17662호
전남도지사杯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옥쇄를 각오한 패 11보(157~184)
白 흥석의 6단
<목포시>
黑 김종민 6단
<해남군>

‘유리할 때 싸워라’는 격언이 있다. 하수들은 보통 형세가 불리해지면 그때서야 싸우려고 덤벼들지만 그때는 이미 싸워봐야 이기기 어려운 법이다.

백 ④가 유리할 때 더욱 더 덤벼든 수로, 흥석의 6단의 패가 그대로 전해져 온다. 이럴 때 조금씩 물러서 보면 어느 틈엔가 상대가 추격해 와서 역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흑 157로 물고 161로 연결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다음 163으로 젖혀간 수로는 164에 늘어두

면 편안한데 불리한 형세가 163이라 는 강수를 두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좋은 수는 아니었다. 뭔가 꼬투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백 164로 끊고 166으로 흑 한점이 잡히고 보니 172까지 별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6단은 마음이 다급해진다. 갈수록 국면이 좁혀져 역전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연결을 외면하고 175로 덤벼든 것도 이같은 다급한 마음의 표출, 183으로 옥쇄를 각오한 패로 덤벼보는데… 160~161을

163으로 젖혀간 수로는 164에 늘어두면 편안한데 불리한 형세가 163이라 는 강수를 두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좋은 수는 아니었다. 뭔가 꼬투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백 164로 끊고 166으로 흑 한점이 잡히고 보니 172까지 별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6단은 마음이 다급해진다. 갈수록 국면이 좁혀져 역전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연결을 외면하고 175로 덤벼든 것도 이같은 다급한 마음의 표출, 183으로 옥쇄를 각오한 패로 덤벼보는데… 160~161을

163으로 젖혀간 수로는 164에 늘어두면 편안한데 불리한 형세가 163이라 는 강수를 두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좋은 수는 아니었다. 뭔가 꼬투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백 164로 끊고 166으로 흑 한점이 잡히고 보니 172까지 별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 5단은 이 6단의 큰 세력을 험악적으로 삼각하며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이 6단은 막판까지 차이를 좁히려고 했으나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둘을 거두었다.

이 6단은 올해 KBS바둑왕전, 명인전 등에서 9연승을 달리다 첫 패점을 기록했다.

백 5단과의 역대전적에서도 2승 5패로 열세.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오큐컬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백홍석, 전자랜드배 4강 진출

백홍석 5단이 23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 배 왕중왕전 청룡부 8강전에서 이영구 6단을 279수 만에 백9집 밖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백 5단은 우변에서 이 6단의 큰 세력을 험악적으로 삼각하며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이 6단은 막판까지 차이를 좁히려고 했으나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둘을 거두었다.

이 6단은 올해 KBS바둑왕전, 명인전 등에서 9연승을 달리다 첫 패점을 기록했다.

백 5단과의 역대전적에서도 2승 5패로 열세.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26>

Take care of yourself

스스로 몸을 챙기도록 하세요

A:I'm on call tonight and all day tomorrow.

B:You look tired already. Planning on taking a nap today?

A:I hope so. I have patients scheduled until three, so it just depends.

B:Take care of yourself.

A: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B:당신, 이미 피곤해 보이는데요. 오늘 낮에 잠깐 눈이라도 붙일 계획인가요?

A: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환자가 3시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봐야 되겠어요.

B:스스로 몸을 챙기도록 하세요.

be on call : 근무를 서다

take a nap : 잠깐 눈을 끓이다, 낮잠을 자다

depend : ~에 달려 있다.

응용표현

- Planning on buying a new house?

새 집을 살 계획입니다?

오하이오 니혼고 <826>

こんでると思うよ

붐빌거예요

A:あ、今日はこの道(みち)工事中(こうじちゅう)なのか。失敗(しっぱい)したな。

B:じゃ、この先の細道(ほそみち)を通(とお)って行きましょう。

A:でも皆(みんな)同(おな)じことを考えるから、こんでると思うよ。

B:そうですね。遠回(とおまわ)りになるけど、大通(おおとお)りを通った方が早く到着(とうちやく)するかもしれませんね。

A:あ、 오늘은 이 길 공사중인데. 낭폐군.

B:그럼, 이 끝의 좁은 길을 지나서 갑시다.

A: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니까, 봄빌거예요.

B:그렇군요. 돌아가긴 합니다면, 큰길을 지나는 것이 빨리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工事中(こうじちゅう) : 공사중

失敗(しっぱい) : 실패

同(おな)じこと : 같은 일

遠回(とおまわ)り : 돌아감

니하오 총구워 <17>

我 想 租 房 子

집을 세 얻으려고 하는데요

A. 我 想 租 … 意 房 子。

Wǒ xiǎng zū … yì fángzi

Wǒ xiǎng zū … yì fángzi

B: 没 有 合 适 的?

Méi yǒu héshí de?

Méi yǒu héshí de?

A: 没 有, 这 里 没 有 好 的 房 子。 我 想 租 的 房 子 没 有 好 的。

Méi yǒu, zhè lǐ méi yǒu hǎo de fángzi.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Méi yǒu, zhè lǐ méi yǒu hǎo de fángzi.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B: 没 有, 我 想 租 的 房 子 没 有 好 的。

Méi yǒu,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Méi yǒu,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A: 租 房 子 也 要 付 租 费 啊。

Zū fángzi yě yào fù zū fèi aih.

Zū fángzi yě yào fù zū fèi aih.

Zū fángzi yě yào fù zū fèi aih.

B: 没 有, 我 想 租 的 房 子 没 有 好 的。

Méi yǒu,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Méi yǒu,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Méi yǒu,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B: 没 有, 我 想 租 的 房 子 没 有 好 的。

Méi yǒu,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Méi yǒu,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Méi yǒu, wǒ xiǎng zū de fángzi méi yǒu hǎo de.

한자 이야기 <444>

月下冰人(월하빙인)

달 월, 아래 하, 얼음 빙, 사람 인

월하빙인(月下冰人)은 월하노(月下老)와 빙상인(水上人)이 합쳐진 것으로, 결혼 중매인을 일컫는 말이다.

우선 ‘월하노’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태종 때, 위고(韋固)라는 젊은이가 여행 중에 ‘달빛 아래에서 독서’ 독서하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 손에 들고 있는 빨간끈(赤纓)의 내력을 물자 그 노인은 본래 천상(天王)에서 남녀의 혼사문제를 맡아보는데, 노끈은 남녀의 인연을 맺는 노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고는 14년 후에나 이루어진다고 예언하여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음은 ‘빙상인’의 이야기이다. 진나라 때 영고책(令孤策)이라는 사람이 얼을 위에서, 얼을 밑에 있는 사람과 장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꿈을 꾸고 이상히 생각하여 색담(棗談)이라는 접쟁이를 찾아 해몽을 부탁하였다. 색담은 얼을 위의 사람인 당신이 3, 4월 봄이 되면 결혼중매를 하게 될 것이라 풀이하였다. 고연 고태수(太守)의 아들과 장씨(張氏) 딸의 중매를 서서 성사